



金現感虎 說話의 研究

저자 (Authors)	林在海
출처 (Source)	한국민속학 17 , 1984.3, 179-189 (11 pages) The Korean Folklore 17 , 1984.3, 179-189 (11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민속학회 The Korean Folklore Socie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800830
APA Style	林在海 (1984). 金現感虎 說話의 研究. 한국민속학, 17, 179-18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15 09:4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제12회 전국대회 발표요지>

金現感虎 說話의 研究

林 在 海*

一. 머리 말

민속학, 특히 구비문학 분야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현장론적 방법이 개척되어 소개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자료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척한 쪽이나 소개하는 쪽이나 모두들 뚜렷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제보자가 구연한 자료는 제보자의 의도나 구연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 다른 정도를 비교해서 공통상이점 찾기에 머무르고 말거나, 몇가지 화소를 기준으로 드러내 놓고 화소의 있고 없음을 표시하는 데 만족해서는 모처럼 개척한 방법론의 의의를 구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민속학 연구의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논의에서는 김현감호 설화를 자료로 하여 현장론적 방법의 의의를 살릴 수 있는, 자료를 보는 시각과 자료를 분석하는 틀을 새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二. 문헌자료를 다루는 현장론적 시각

현장론적 방법은 구연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한정할 수 있으나, 그 방법론

* 안동대학 조교수

적 시각은 문헌자료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헌자료를 다루되 종전처럼 작품 자체만을 문제삼지 않고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을 상호관련성 속에 함께 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김현감호 설화를 다루면서 문헌자료들의 비교검토가 여러 차례 있고 그 선후관계가 고찰되긴 했지만 왜 이 설화가 그 문헌에 수록되었는가? 또는 수록자는 그 설화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이 문제를 적절히 살피기 위해서는 자료 자체의 분석도 필요하지만, 동일자료가 전재(全載)되거나 축약되어 수록된 경우는 그 분석이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수록자가 작품을 수록하면서 곁들인 관련 기록들을 통해서, 그리고 수록자의 자질을 통해서 그 수록 의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 자체가 지닌 의미 이상으로 제보자가 왜 그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듯이 왜 그 이야기를 문헌에 수록했는가 하는 기록자의 의도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현감호 설화는 一然에 의하여 《삼국유사》에 수록되면서부터 일연 스스로에 의한 해석이 이루어졌다. 일연은 申屠證 설화와 함께 이 설화를 수록한 다음, 김현과 도징의 호랑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김현의 호랑이가 어진 본성을 지녔다고 평했다. 그리고 설화의 선후관계를 따져볼 때, 김현이 정성껏 탐돌이를 하는 데 감동하여 부처님이 호랑이로 接應해 나타나서 김현을 도운 것이라고 이 설화 해석의 매듭을 지었다. 이 해석은 일연이 이 설화를 이해한 결과이면서 설화를 통해서 나타내려고하는 의도이기도 한 것이다. 결국 일연은 이 설화로, 佛家に 귀의하면 부처님이 여러 방면으로 사물에 접응하여 도움을 준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다.

典據를 《삼국유사》로 밝힌 가운데 자료를 그대로 수록한 閔周冕의 《東京雜記》에는 김현감호 설화의 원문과 일연이 지은 讚만 실려 있다. 김현감호 설화를 신도징 설화와 비교하여 해석한 일연의 譯文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찬이 이 설화를 설명해 주는 구실을 한다. 즉, 민주면이 받아들인 것은 설화 자체와 찬 뿐인 셈이다. 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山家不耐三兄惡 蘭吐那堪一諾芳 義重數條輕萬死 許身林下落花忙”

이 책에서는 김현감호 설화가 찬으로 하여 다른 의미를 지니도록 구체화되고 있다. 즉 호녀가 “雖曰非類 得陪一夕之歡 義重結之好”라고 하며 스스로 희생을 자처했으나, 의를 중히 여기고 목숨을 가버려 여기는 호녀의 희생정신이 두드러진 것이다. 민주면의 의도는 일연의 찬을 수용함으로써 의리의 중함을 내세우기 위해 이 설화를 수록한 셈이다. 그러나, 일연이 찬을 지은 것은 의리를 중하게 여긴 호녀의 희생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호녀를 부처의 應身으로 보았으므로 결국 부처의 감응하는 바 신통력과 그 큰 뜻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이 찬만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의 의미와 다른 문맥과의 관련성 속에서 지니는 의미는 서로 크게 다른 셈이다.

전거를 《殊異傳》으로 밝히고 있는 《大東韻府群玉》의 ‘虎顛’은 그 줄거리가 《삼국유사》의 것과 같다. 다만 줄거리 중심으로 축약해 두었을 뿐이며, 해석에 관련될 만한 결말은 전혀 없다. 줄거리의 진행과 어휘의 사용이 동일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삼국유사》의 김현감호 설화도 《수이전》을 전거로 한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 책의 저자인 權文海는 故事를 韻符에 따라 사전식으로 편찬했기 때문에 자기의 주관울 결들이지 않은 채, 있는 자료를 간추려서 실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기록은 김현감호 설화에 대한 저자의 수록 의도를 밝히는 데에는 도움되는 자료가 아닐 수 있으나, 이 설화가 수이전을 母本으로 하여 여타의 문헌에 기록전승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三. 구전자료의 기록전승과 그 논쟁

지금까지 다룬 자료들은 모두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전재하거나 축약하여 수록한 것이므로, 수록자의 수록의도는 따로 밝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정한 청중을 대상으로 스스로 겪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상황에서는 자기의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 이야기 자체를 변형시켜 이야기할 수 있다. 《삼국유사》의 편찬 시기보다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崔滋의 《補閑集》에 ‘虎僧’ 설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문헌에서 전제한 것이 아니라, 邊山의

늙은 중이 구연하는 것을 듣고 최자가 《보한집》에 수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자료는 앞의 문헌자료들과는 달리 기록자가 제보자의 구연을 직접 듣고서 기록한 일종의 자료보고서라 할 수 있다. 특히 제보자가 밝혀져 있을 뿐 아니라 기록자의 생각도 덧붙여져 있어서 자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호승설화의 내용은 김현감호의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나 상당한 부분이 같으며, 사건의 전개양상도 비슷하다. 제보자인 노승이 스스로 겪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므로 팔관회에 나타난 호랑이는 처녀가 아니라 소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현과 달리 남녀간의 통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스님이 호랑이 굴인 소년의 집을 따라가서 김현과 비슷한 과정을 겪고 마침내 호랑이 소년이 自請하므로 호랑이를 죽이는 대목에 이른다. 이때 호랑이 소년은 나중에 인간으로 환생하여 절로 찾아 갈테니 머리를 삭발하여 제도해 달라는 말을 남기고 스님이 지니고 있는 창에 스스로 찢려 자결한다. 그로부터 15년 후에 그 스님은 인간으로 환생한 호랑이 소년을 만나서 중이 되게 하였는데, 나중에 그 호승이 日嚴寺의 법사가 되어 법력이 대단한 경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으로 이야기의 끝막음을 하고 있다.

그 줄거리를 김현감호와 비교해 보면, 인간으로 변신한 호랑이가 자기와 친교를 맺은 인간에게, 형들이 저지른 죄악을 대신하여 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죽여 줄 것을 원하고 죽기 전에 불법을 이룰 수 있도록 유언을 하며 마침내 그 유언이 성취된다는 점에서 거의 같은 내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설화에서는 호랑이 처녀와 총각이 결합한다는 화소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작품 전개의 양상이 새로운 면모를 보이게 된다. 호승설화에서 호랑이 소년은 죽음으로써 살신성인하는 불가의 법을 따르고, 그 업보로써 인간으로 환생하여 중이 될 뿐 아니라, 훌륭한 법력을 발휘하여 사람을 감복하게 하는 법사로까지 발전한다.

이처럼 호랑이가 인간으로 환생하여 법사가 되고 큰 불법을 성취하는 과정이 김현감호 설화에 없는 한편, 김현감호에 나타나는 인간과 호녀의 결합 과정이 호승설화에는 없다. 이와 같은 차이는 설화를 수록하거나 이야기한

사람의 의도와 전거에 따라서 그 원인이 분석되어야 한다. 일연은 이미 문헌에 정착되어 있는 이야기, 즉 수이전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재했다. 따라서, 이야기를 통해서 일연 자신이 하고자 하는 뜻이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없어서, 신도징 설화를 함께 실었고 그래도 미흡해서 두 설화를 비교해서 해석하는 글과 논평하는 글을 이야기의 말미에 다시 덧붙였다. 그러나, 변산의 노승은 최자에게 이야기할 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할 필요가 없다. 청중인 최자를 의식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뜻을 살려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바꾸어 할 수 있다. 그리고, 최자에게 이야기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스로 겪었던 것처럼 구연했던 것이다.

일연이 불법을 내세우기 위해서 김현감호 설화를 삼국유사에 수록했던 것처럼, 최자에게 호승설화를 들려준 노승도 불법을 내세우기 위해서 호승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불법을 내세우는 데에는 인간인 총각과 호랑이 처녀가 반드시 통정할 필요가 없다. 일연도 이 설화를 해석하거나 논평하는 글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승도 그 점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 겪은 바처럼 이야기하는 판이니 호랑이 처녀와 통정했다는 대목이 삽입될 수도 없었다. 일연은 이미 있는 설화를 그대로 수록하고 자기의 뜻을 전하고자 하니 불법을 전하는 데에도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그래서, 호랑이 처녀는 부처가 김현의 불심에 감동하여 나타난 것이라는 해석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승은 사정이 다르다. 자기가 뜻하는 바대로 얼마든지 이야기를 재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호승설화는 호랑이가 인간으로 환생해서 스스로 불법을 이루고 윤회설을 입증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김현감호 설화는 호랑이가 죽고 이에 감동한 김현으로 하여금 절을 짓고 梵網經을講하는 데서 머물렀다.

그런데, 노승의 호승설화를 들은 최자는 이를 그대로 기록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도 폈다. 노승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주장도 펴면서 논란을 벌였으니, 최자는 호승설화를 두고 간접적으로 노승과 논쟁을 벌인 셈이다. 최자는 이 설화를 두고 한 마디로 심히 괴이하

고 허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일컬기를 앞일을 미루어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에는 호승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 부정만 할 수도 없다고 하며 스스로 인정 했다. 그러나, 마침내는 오직 일엄사의 법사만이 그에 해당한다면 이것 역시 믿기 어려운 것이라 하면서 부정적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세상 사람들이 호승 설화가 있다는 것을 두루 믿고 있더라도 최자로서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야기의 사실성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인 것은 최자 뿐이다. 최자가 불승이 아닌 유학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민주면도 유학자이면서 설화의 괴이하고 허탄함을 말하지는 않았다. 다만 불법 대신에 의리를 취하고자 했을 뿐이다. 그런데, 최자가 노승에 맞서서 아무 것도 취하는 바 없이 괴이하고 허탄한 것으로 여겨서, 사실로 믿지 않으려는 것은 불법에 대한 거부감 때문만이 아니라, 자료에 대한 불신감 때문이기도 하다. 즉, 이 설화를 문헌을 통해서 접한 것이 아니라, 노승이 구연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구전되는 자료에 대한 불신감 탓이다. 문헌자료에 대하여 갖는 신뢰감 이상으로 구전자료에 대한 불신감은 오늘날의 학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편견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四. 구전설화의 각편과 화소체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에서 실시한 전국 구비문학조사 사업 결과가 ‘한국구비문학대계’란 이름으로 계속 출판되면서 김현감호 설화와 비슷한 내용의 구전설화가 몇 편 수록되어 보고되었다. 현재까지 출판된 36권의 자료 가운데 관련성을 살필 수 있는 자료는 모두 5편이고 이 가운데 2편은 필자가 직접 수집 보고한 것이다. 이들 구전자료와 문헌자료를 비교하면서 자료의 변이양상과 그 과정을 분석적으로 살피는 논리를 세워보고자 한다. 그 동안 이러한 검토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화소나 줄거리를 비교하여 그 공통상이점을 기술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는 공통화소를 들어 동일 유형의 설화로 규정하고 그 선후관계를 따지는 데 바빴다. 이는 화소와 유형의 문제들을 원자문적으로 다루는 역사지리학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한 탓으

로 볼 수 있다.

김현감호 설화를 유형적 차원에서 그 줄거리를 정리하면 ‘호랑이 처녀가, 정을 준 청년에게 스스로 희생당하여 청년의 성취를 이루어 주고, 청년은 그에 보답하여 절을 지어준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줄거리를 지니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화소는 호랑이 처녀와 청년의 만남이다. 이 설화와 유형을 생성하고 이야기로 이끌어가는 ‘유형화소’는 ‘호랑이 처녀와 청년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유형화소를 바탕으로 유형적 차원의 줄거리를 구성하는 1) 호랑이 처녀가 자청하여 청년의 손에 죽고, 2) 청년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큰 성취를 이루며, 3) 호랑이 처녀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절을 지어준다는 세 화소는 김현감호 설화의 유형적 차원의 동질성을 지니도록 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뿌리화소’이다. 이야기의 유형을 생성하고 이끌어 가는 유형화소와 유형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지탱하는 뿌리화소 외에 각 설화는 ‘변이화소’를 지니고 있다. 변이화소는 각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변이화소가 우세하여 뿌리화소가 없어지거나 달라지게 되면 동일 유형의 변이형이 된다. 물론 유형화소까지 달라질 수 있는데, 유형화소가 탈락되거나 달라지면 다른 유형의 설화가 된다. 이러한 화소 체계에 따라 자료들을 정리하면 유형과 변이형 및 이유형이 선명하게 부각된다. 대상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김현감호 : 일연, 《삼국유사》 권 5.

나) 호승설화 : 최자, 《보한집》 권 하.

다) 신흥사 유래 : 인권환, 《한국 구비문학대계》 4-1(1980), 177쪽.

라) 호암사의 유래 : 조동일. 임재해, 《한국 구비문학대계》 7-2(1980), 701쪽.

마) 호륜사의 유래 : 조동일. 임재해, 위의 책, 770쪽.

바) 호랑이 처녀의 죽음 : 조동일. 임재해, 《한국 구비문학대계》 7-3(1980), 588쪽.

사) 호랑이 처녀 : 정상박. 유종목, 《한국 구비문학대계》 8-1(1980), 52쪽.

이 자료들을 화소체계에 따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화 소 체 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유 형 화 소	+	-	+	+	+	+	+
뿌 리 화 소 1	+	+	+	+	+	+	+
뿌 리 화 소 2	+	-	+	+	+	+	+
뿌 리 화 소 3	+	-	+	+	+	-	-

(변이화소에 대한 정리는 줄임)

위의 정리에 의하여 유형화소가 다른 나)의 호승설화는 이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바), 사)는 유형화소는 동일하되, 뿌리화소 3이 탈락되었으므로 동일유형의 변이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변이화소를 계속해서 정리해보면 각편의 특징이 드러날 수 있으나, 이 논의에서는 유형과 변이형 및 이유형만 문제삼기로 한다.

五. 김현감호형 설화의 이유형과 변이형

먼저 유형과 이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유형인 호승설화의 유형화소는 ‘호랑이 처녀와 청년의 만남’이 아니라, ‘호랑이 소년과 스님의 만남’이다. 따라서, 유형화소를 근거로 동원되는 뿌리화소들은 이야기 전개와 논리상 자연스럽게 변화를 겪게 마련이다. 호승설화의 뿌리화소는 1) 호랑이 소년이 스님에게 자청하여 죽음을 당하며, 2) 스님은 유언에 따라 인간으로 환생한 호랑이 소년을 증으로 제도해 주고, 3) 증이 된 호랑이 소년은 법사가 되어 법력을 떨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호승설화는 김현감호형 설화에서 변이를 일으켜 새로운 유형인 호승형 설화를 형성한 셈이다.

김현감호형 설화는 아직도 널리 구전되고 있으며, 조사에 따라 더 수집될 가능성도 높으나, 호승형 설화는 사정이 다르다. 호승형 설화는 그 자체로서 전승력을 지니고 구전되던 것이 아니라, 김현감호형 설화를 알고 있는 노승이 최자에게 불법을 전하고자 새로운 유형으로 재창조해서 들려준 것이므로, 노승과 최자 사이에서 구연이 이루어진 일회성 자료이다. 최자가 이 설화를 《보한집》에 기록을 남기긴 했지만 스스로 괴이하고 허탄한 것이라고

논평한 것으로 보아 널리 퍼뜨렸을 가능성은 적다. 비록 널리 퍼뜨렸다고 하더라도 최자의 이야기 상대가 될 청중들의 성격상 민중들에게 널리 전승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불법을 닦는 노승이 불법에 맞서고자 하는 최자에게 불가의 진리를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미 전승되고 있는 이야기를 자기가 실제로 겪은 바처럼 변형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 호승형 설화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이야기가 구연현장에서 재창조되었던 것이며, 이러한 유형적 차원의 변이는 사찰연기설화인 사물전설이 고승담인 인물 전설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김현감호형 설화의 구전자로 5편 가운데에서 다), 라), 마)는 기본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바), 사)는 뿌리화소 3이 탈락된 변이형이 되었다. 기본형도 각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특징과 의미를 지니며 변이형의 각편들로서도 차이를 보이지만 각편 차원의 차이는 유보해 두고 기본형과 변이형 사이의 특징만을 거론하기로 한다.

기본형의 자료들은 자기 신흥사, 호암사, 호륜사의 創寺緣起說話들이다. 사찰만을 생각하면 사물전설이지만 구체적인 인물도 등장하여 사건을 벌이므로 인물전설의 성격도 지녔다. 이 가운데에서 신흥사는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망각산에 실재하는 절이나, 호암사와 호륜사는 경주 근처에 있었던 절이라고 이야기되지만 실재하지 않는 절이다. 호원사의 이름이 전승과정에서 변이되었거나 아니면 이야기의 내용에 맞게 재창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각편이 모두 기본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김현감호 설화가 호원사의 창사연기설화 구실을 하는 것과 같은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편들 가운데에서도 신흥사 유래가 김현감호 설화와 가장 가까운 것은 전설의 증거물인 신흥사가 실재하고 있고,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가 신흥사를 보아온 그 고장 사람이기 때문이다. 즉, 김현감호 설화가 전파되어 신흥사의 연기설화로 수용되고 증거물인 신흥사가 아직도 존재하므로 이야기의 내용도 증거물과 함께 생생하게 살아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야기의 원래 고장인 경주에는 그 증거물인 호원사가 오래 전에 폐사가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호암사나 호륜사로 막연히 명칭만 전승되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동일문화권에

속해 있지만 증거물의 훼손과 함께 이야기도 어느 정도 훼손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본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창사연기설화로서 전승이 계속되는 까닭이다.

이에 비하여 변이형의 각편들은 민담화 현상이 짙게 나타난다. 각편 바)는 ‘화랭이’의 유래를 이야기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증거물이 없으므로 민담에 가까우며, 제보자의 의도를 존중하여 전설이라고 하더라도 기본형과는 다른 전설이다. 화랭이의 명칭 유래를 설명한 것이다. 각편 사)는 전설적 요소를 지니지 않은 온전한 민담이다. 변이형의 각편이 지닌 공통적인 특징은 남주인공인 청년이 우연히 호랑이 처녀를 만나서 그녀가 시키는대로 하다가 보니 뜻하지 않은 성취를 이루게 되는 민담의 전개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뿌리화소 3)과 같은 創寺話素가 나타날 수 없다.

기본형은 창사연기설화인데, 변이형은 이름없는 한 청년의 우연한 성취를 다룬 민담이라는 장르적 차이 외에도, 제보자의 구연능력이 기본형과 변이형의 차이를 이루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본형의 각편을 구연한 제보자는 모두 구연능력이 뛰어난 이야기꾼이다. 각편 다)의 제보자 진경성(남, 29)은 “재담가였고, 아무에게나 자신이 알고 있는 얘기를 들려주길 좋아하는” 분이다. 각편 라)의 제보자 김복종(남, 79)은 “이야기를 잘 하는 분으로 이웃 봉길리까지 소문이 나 있었다.…… 들던 바와 같이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었으며 이야기하기를 또한 즐겨 했다.” 각편 마)의 제보자 김만갑(남, 69)은 이야기판에 참여하기 위해 대서소 문까지 달고서, 조사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니 아주 반갑다고”. 인사할 정도로 “평소에도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는” 분이었다. 하루 종일 50여편의 이야기를 내리하고서도 이야기하는 데 정신이 팔려 집에 돌아가지 않고 경로당에서 자고는, 조사자를 가리키며 “이 젊은 친구 때문에 머리 시(세)고는 침(처음)으로 외박하네”라고 농담까지 했다. 그러나, 변이형의 제보자들은 상대적으로 그 자질이 부족한 분들이다.

기본형의 제보자는 대단한 이야기꾼으로서 그 지역사회에 공인받은 분들이다. 훌륭한 이야기꾼은 기억력이 뛰어나고 이야기하기를 즐기는 분으로서

이 분들에게는 창사연기설화와 같은 전설이 쉽게 변이형과 같은 민담으로 바뀌어 구연되지 않는다. 제보자 개인의 의식과 구연능력이 각편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유형적 차원에서의 변이나 이탈은 없다. 변이형은 기본형에서 벗어나 유형적 차원의 변이를 일으켰으나, 유형화소가 동일한 만큼 같은 유형에 속하며 ‘인간과 호랑이는 서로 도움을 베풀 수는 있지만 이성으로서의 결합은 파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유형적 차원의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변산의 노승은 호승 설화와 같은 이유형을 새로 창조했는데, 이는 제보자의 뜻하는 바가 이미 있는 설화의 유형으로는 설득력을 지니기 어려웠으므로, 새로운 유형의 창조로까지 나아간 것이다. 구연능력이 뛰어난 제보자는 원래의 이야기를 충실히 전승하면서 유형적 범주 안에서 재창조를 하지만, 나타내고자 하는 바 주체의식이 절실한 제보자는 이미 있는 설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유형의 설화를 스스로 개척해 내는 것이다.